

IMF 에 빛나는 초우량기업 LG 정유



LG정유는 (대표 許東秀 부회장) 1967년 5월 19일 국내 최초의 민간 정유 회사로 출발한 이래 지난 32년간 우리나라 석유 및 석유화학산업의 선도기업으로 국가경제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끊임없는 기술축적과 경영혁신으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여 종합에너지 및 석유화학산업의 World Pacesetter 로 성장해 왔다.

LG정유가 걸어온 지난 32년은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과 성취의 역사였다. 하루 6만배럴 규모의 정제능력을 갖춘 회사로 출발하여 시설 확충과 고도화 및 사업다각화를 위해 꾸준히 시설투자에 주력해 왔다. 특히 許東秀 부회장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94년 이후 양적, 질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계속하여 현재 전남 여수에 하루 65만배럴의 정유공장을 비롯 연산 65만톤의 파라자일렌공장, 연산 40만톤의 방향족공장, 연산 16만5천톤의 폴리프로필렌공장, 하루 3천3백배럴의 윤활유 공장 등을 갖춘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대표적 종합에너지 및 석유화학회사로 성장했다.

그 중 하루 7만배럴 규모의 B-C유를 정제하는 중질유분해시설 및 하루 19만배럴의 등·경유탈황시설은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고도화시설로서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그 규모를 자랑한다. 이와 같은 단계적 시설투

자는 오늘과 같은 국제적인 무한경쟁을 미리 예견하여 94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늘날에는 세계적인 시설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LG정유는 고객들이 언제 어디서나 최고급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전국 각지에 2,700여개의 주유소 및 230여개의 충전소를 갖추고 있다. LG정유는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주유소 현장 서비스를 대폭 강화했다. 이를 위해 주유소 서비스 실행 지침인 <주유소 표준운영기준>을 제정, 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보상을 통해 주유소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고객들이

주유소에서 주유, 세차, 부분(경)정비 서비스, 윤활유 교환, 생필품 구매, 일상업무처리 등이 가능하도록 편의점과, 부분정비 프렌차이즈인 Auto Oasis 등의 부대시설을 갖춘 윈스톱서비스체제를 완비하여 새로운 생활공간을 만들어 가고 있다. 한편, 고객의 주유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누적하여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각종 혜택과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LG정유보너스카드> 서비스를 비롯하여 제휴카드, 상품권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갖추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NCSI 즉 주유소 서비스부문 국가별 고객만족 지수부문에서 LG정유가 1위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고객감동의 영업정책에 힘입어 LG정유는 국내석유시장에서 약 32%를 넘는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우수한 품질과 뛰어난 서비스로 국내 석유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LG정유가 영업현장에서 단행한 가시적인 성과로 우선 95년 1월 국내 최초로 휘발유에 브랜드 개념을 도입, 최첨단 엔진보호 휘발유인 <테크론>을 출시한 것을 들 수 있다. 당시 업계에서 아무도 시도하지 못했던 휘발유 품질혁신을 LG정유가 시도하여 국내 휘발유시장에 엔진보호 휘발유와 브랜드 휘발유 바람을 일으킨 진원지가 되었다.

한편, 96년5월에는 회사 규모와 향후 발전계획에 걸맞는 회사 이름과 주유소 외관 디자인을 혁신하는 CI작업을 단행하였다. 이를 통해 LG정유는 미래 지향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기업이미지를 구축하였다. 특히, 주유소의 디자인을 혁신하여 도시미관을 고려한 환경보전 의지를 표출하는 한편 세계 초일류기업을 지향하는 도전정신을 최첨단 하이테크 이미지로 형상화하여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라는 찬사를 받았다.

LG정유는 고객들의 보다 나은 미래 창조를 위해 연구개발사업도 활발이 전개하고 있다. 1986년에 설립된 기술연구소를 확대 개편하여 1998년에는 대덕단지내에 대단위 연구소인 Value Creation Center를 완공하여 한차원 높은



**“LG정유는
'86년 설립된
기술연구소를 확대
개편 대덕단지내
대단위 연구소인
「Value Creation
Center」를
완공하여 한차원
높은 기술개발과
다양한 첨단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술 개발과 다양한 첨단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LG정유의 Value Creation Center는 그 동안 끊임없는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생산공정 자동화 및 신제품, 신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정부가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해 국책연구 과제로 선정된 G-7프로젝트의 핵심과제인 대체에너지 개발의 중심연구소로 국내 최초의 연료전지개발에 성공하여 현재 상업생산을 목전에 두고 있다.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도 LG정유가 항상 최우선의 경영과제로 삼고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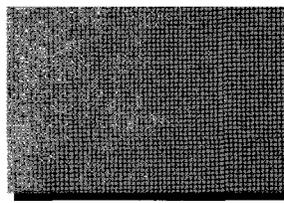
것이 환경과 안전이다. LG정유는 종합 환경 마스터플랜에 의해 업계 최대 규모의 분해 및 탈황시설과 전기집진시설, 폐수 처리 및 재활용 시설, 대기 및 수질오염 물질 배출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24시간 원격제어 통제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결과 환경대상 수상, 환경친화기업 지정, ISO14001 국제환경인증 획득 등으로 환경분야에서 국내 최고 기업임이 입증되었다. 안전에 대한 기록도 남다르게 뛰어나 30차례에 달하는 600만인시, 200만인시 무사고 기록은 물론 2년 연속 국제산업안전콘테스트 1위라는 국내기업 초유의 성과를 거두었다.

LG정유는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위해 매년 환경미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 규모의 프로그래밍인 테크론배를 후원함으로써 우리나라 바둑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사회체육진흥을 위해 여자배구단을 운영하고 있다. 1991년부터 현재까지 한국 배구 슈퍼리그 9연패의 금자탑을 쌓는 등 국내 여자배구대회를 석권하고 있는 LG정유 여자배구단은 각종 세계대회에도 단일팀으로 출전하여 세계 정상급팀으로서의 위치를 다지고 있다.

한편, LG정유는 국내 기업 최초로 지역사회 발전기금을 마련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장학사업, 환경정화 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다. 가뭄지역 식수보내기 운동, 수해지역 연료무상 공급, 신장기금 전달, 장애인기금전달 등 뜻있는 사업마다 도움의 손길을 뻗어 왔다.

LG정유의 許東秀부회장은 대외개방과 자유화로 대변되는 석유산업의 환경변화를 예측하고, 구조혁신을 통한 총체적 원가경쟁력 확보와 임직원의 의식개혁을 통한 세계 초일류 의식의 재고만이 무한경쟁 상황속에서 LG정유가 21세기에도 세계 석유업계의 선도적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길임을 인식하여 생산에서 물류, 영업에 이르기까지 회사내 모든 조직 및 인원이 업무수행 역량을 최대한 강화하고 이들이 회사가 필요로 하는 가치를 창출하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경영혁신 활동을 진두지휘해 오고 있다. 현재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인 ERP와 경영개선프로그램인 MIP등 혁신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익성 향상 및 원가절감활동이 점진적인 개선 차원을 넘어서 한계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식스시그마(6σ) 개념을 도입하여 단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LG정유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수익성 및 현금흐름 중심의 질적 경영이 IMF 관리체제하의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빛을 보고 있다. LG정유는 이러한 질적 경영을 통해 98년도 매출액이 7조9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0% 증가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이 3,296억원으로 국내 민간기업중 최고의 수익을 달성했다.

이 결과 이미 LG정유는 IMF관리체제로 인해 온 나라가 외화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98년 1월 칼텍으로부터 5억\$을 파격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 채권시장에서 2.5억\$의 채권을 발행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지난 3월 미국의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다드 앤드 푸어사(S&P)가 LG정유에 대한 신용등급을 투자적격인 「BBB-」로 상향조정한데 이어 지난 5월 7일 무디스(Moody's)사가 투자적격인 「Baa3」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국제적으로 신용도를 완전히 회복하게 되었다. 따라서 LG정유는 IMF 관리체제 이후 세계 2대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사와 S&P사로 부터 동시에 투자적격으로 인정받는 국내 최초의 민간기업이다.

LG정유의 이같은 높은 신용도는 총체적 원가경쟁력 강화를 통해 세계 초일류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익성 및 현금흐름(Cash Flow)을 중심으로 경영, 각종 혁신활동과 지식경영 및 식스시그마 도입 등을 기반으로 한 최고 수준의 질적 경영, 그리고 품질 향상 및 서비스등 모든 분야에서 각자가 세계 초일류가 되고자 하는 임직원들의 노력 등을 반영하여 국제신용기관들이 내린 평가이다.

이와 같은 적기의 투자, 최상의 품질 및 서비스, 지속적인 혁신활동, 최고 수준의 질적 경영 및 세계 최고가 되고자 하는 임직원들의 부단한 노력 등이 국내 대부분의 기업들이 침몰하거나 좌초하는 요즘과 같은 경제위기속에서 최고의 알짜기업으로 알려진 LG정유가 하루 아침에 우연히 경쟁력을 갖춘 것이 아닌란 것을 새삼 생각해 한다.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IMF 체제하에서의 최고 알짜 기업이다.

LG정유는 지금 추진중인 질적경영 및 혁신활동이 결실을 맺는 2005년에는 생산능력이나 매출액 등 양적인 규모 뿐만 아니라 인원, 시설, 생산, 기술, 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세계톱(Top)5의 에너지 회사>로 도약하고자 하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전 임직원이 허리띠를 더욱 조이고 있다.

**“LG정유는
지금 추진중인
질적경영 및
혁신활동이
결실을 맺는
2005년에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세계 Top5
에너지회사」로
도약하고자
전 임직원이
힘을 합쳐
노력하고 있다”**